

# 가정의달,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하여

의정단상

박원중  
전남도의원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이며 우리 가정의 보배이자 기쁨이라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자라며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의무이자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최근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인구 4000만명 이상인 37개국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 대한민국이 1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의 비율이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방정환 선생의 말이 떠오른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어린이들이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미래 대한민국의 지극히 바람직한 모습인데 말이다.

모든 지역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무너져 가는 교육환경과 양육시스템 속에서 거주하던 주민들도 좋은 여건을 찾아 주변의 도시로 이주해 인구가 줄었고, 지역 소멸 위기와 더불어 고령화 가속화까지..., 참담한 현실을 맞이했다.

여러 사회적 이유에 의한 출생 인구감소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불러왔으며, 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항상 머물러야 할 곳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줄줄이 폐원이나 폐교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미노처럼 농어촌 지역경제의 기초까지 무너지고 있다. 심각성을 느낀 지자체들이 발 벗고 나서 정책들을 쏟아내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은 채 통계청은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갈아치웠다는 발표를 내놨다.

현실적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가장 심

각하게 겪고 있는 우리 전남지역의 출생아 숫자는 2018년 1만1238명을 기록한 뒤 2019년 1만832명, 2020년 9738명, 2021년 8430명, 2022년 7888명으로 급감했다. 더불어 전체인구도 매달 2000여명씩 줄고 있으며 고령화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판국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 중 27.1%는 무자녀 부부이며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36.3%로 출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 13.5%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30%를 넘어섰다. 이들은 아이를 키우기 힘들니 결혼해도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비중은 무려 46.4%로 이마저도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간의 교육, 양육시스템의 격차를 이야기한다. 놀이시설에 가려고 하더라도 한 시간씩 차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학원에 다니기 위해 버스로 도시로 왕복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에 자리한 시설들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와 연계돼 사람들은 도시로 향하며 이는 기반 시설의 불균형과 아주 기초적인 지역 경제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최근 정부는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심한 정부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해 출산과 양육을 하는 세대와 자라나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아이 키우는, 그리고 키울 예정인 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결혼 적령기의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한다. 의견수렴 없는 정책이 가져온 한계는 이미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라는 수치로 뼈아프게 체감하고 있지 않은가?

소멸 위기 지역의 현실은 아동 인구의

감소로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하기에 민간 투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며 운영되고 있던 곳조차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놀이라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사는 지역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바꿔 공공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그 힘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바로 옆에서 배우고 숨 쉬고 뛰어놀 수 있는 보편적인 공공시설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에 공공의 공간들을 만들어 3세 미만 자녀 돌봄을 24시간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내놓아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서울,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학생 장학금 지원 등 대한민국의 희망들을 위해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 획기적이고 현실의 필요성에 부합되는 정책만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장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 역시 전환이 필요하다. 여러 지역의 좋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고 연구하여 우리 도에 맞는 부족한 기반 시설들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자연이 존재하며, 신산업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그려갈 전라남도만의 22개의 시군만의 특색있는 정책들로 전국 어디든 내놓아도 손색없을 정도의 육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필자는 전남의 아이들이 밖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하여 우리 전남으로 이주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기를지 생각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고대한다.

어떤 정책으로도 1년 만에 출산율을 배로 올린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부족한 교육인프라, 양육과 돌봄 더불어 놀 권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혹시나 당장에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더라도 인구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우리는 지금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 社說

### '의대 신설' 공정성 확보로 갈등 풀어야

#### 전남도 '5자 회동' 또 무산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전남도가 추진 중인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방식 절차와 로드맵 등이 공개됐다. 공모 방식을 '기술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하는 동부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남도가 제시한 후보지 공모 방식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동서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의대신설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와 국립의과대학 설립 포럼을 개최, '도민을 위한 도민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완수하기로 다짐하는 동시에 정부에 추천할 대학 선정 원칙과 절차, 향후 일정 등을 공개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 내 추천대학이 결정되면 올해 말까지 교육부로부터 정원 배정 등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반발도 거세다.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전남도가 제시한 공모방식을 두고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

도가 동부(순천)권 반발에 공개한 2021년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서부(목포권)에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순천대와 순천시는 용역 분석을 통해 해당 용역의 58개 지표 중 상당수가 서부권에 쏠려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가 최근 공개한 공모방식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런 이유로 전남도에 제안한 5자 회동(전남도, 목포시, 목포대, 순천시, 순천대)이 한차례 무산됐다. 동부권이 제시한 공모참여 조건을 내건 전남도는 17일 5자 회동을 다시 제안했지만 또다시 불참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에 의대신설을 약속하면서 어느때보다 의대 유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신설은 도민의 건강권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국립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전남도가 '통합'에서 '단일'로 급선회했다. 동·서부 중 한곳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전남도가 공모방식의 공정성 확보가 절실하다. 의대신설을 놓고 격화되는 '동·서갈등'을 해결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 민간·군공항 이전 올해 실마리 찾아야

#### 강 시장, 설득 편지 계획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이전 논의가 올해 안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죽했으면 강기정 광주 시장이 무안지역민에게 설득 편지를 보낼 계획을 밝혔다.

강 시장은 16일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주·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공항 등 이미 전국은 거점공항 주도권을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답변상태에 놓인 광주 민간·군 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 올해까지 꼭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지난달 24일 무안에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시 소음대책마련 토론회'를 통해 소음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소음대책 토론회를 통해 군공항 최적지로 무안공항 민간 활주로에서 1.9km 떨어진 무안군 망운·운남 2개면이라고 공개했다. 소음피해지역은 2개 지역과 환경면으로 분석돼 광주시는 이전지역 개발을 위한 자금을 1조원 규모로 책정하고

신재생 에너지단지, 스포츠아카데미, 국제학교, 공공기관 이전, 농축산 전용판매장 설치 등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소음대책 토론회에 이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인접 시·군 원탁회의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인접 시·군 등에서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논의가 총선과 의대신설 등의 이슈에 묻히면서 이전 논의도 위축되고 있다. 또 논의대상인 강기정 광주 시장·김영록 전남지사·김산 무안군수 간 3자 회동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역 최대 현안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전반대로 인해 특별법이 무색해지고 있다. 올해 안에 이전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올해 광주시, 전남도, 이전 지자체 간 소모전만 거듭될 경우 중부권 청주공항, 남부권 가덕도신공항, 동남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서남권 전북 새만금공항 등 거점공항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 서석대



지난 2001년 개봉된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는 서로 도우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한 소년의 믿음이 사회를 바꾼다는 내용이다.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찾아 보자는 선생님의 숙제를 받은 11살 트레버. 다른 학생들은 숙제에 무관심했지만 트레버는 한 사람이 3명에게 도움을 베풀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3명에게 무언가를 나누면 세상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누구도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향한 도움의 손길은 미국 전역으로 번져 나갔

고, 기적과 같은 나눔으로 이어졌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지난 200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착한가게' 프로젝트를 내놨다. 나눔을 통해 선행을 생활화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발굴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자는 것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를 털어 나눔에 동참했고, 그 도움은 또 다른 도움으로 이어지는 기적을 만들었다. "죽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베풀면 마지막 순간 참 잘 살았다며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난 2009년 전남의 첫 '착한가게 1호점'

의 주인공인 여수 자산어보 김경수 대표의 회상이다.

'착한가게'의 가치는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자란다'는 트레버의 믿음과 같다. 어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한다는 의미도 크다. 그렇다고 '착한가게'에 가입하고 오랜 시간 나눔을 실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코로나19 이후 찾아온 경기불황으로 시민들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사랑의열매가 추진하는 '착한가게' 가입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폐업에 따른 해지도 늘어나고 있다.

불황이 가져온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전남의 '나눔 1번지' 강진과 장흥에서 많은 자영업자가 단체로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특히 강진은 이번에 20곳이 참여하면서 코로나 이전 누렸던 '100호의 영광'을 다시 꿈꾸고 있다. 장흥에서도 21일 모두 21명의 자영업자가 '착한가게'에 가입한다. 나눔을 잇고 따뜻한 소비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이들을 두고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중한 다수'라는 '소다수 나눔의 시작'이라고 했다. 장흥의 '나눔리더1호'인 김성 장흥군수도 누구보다 '소다수'의 잠재력을 중시한다. 강진과 장흥에서 시작된 '소다수 나눔'이 영화의 제목처럼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있다.

이용한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 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